

독일 자국어교육의 현황*

김봉순**

〈차 례〉

- I. 서론
- II. 독일어교육의 배경
 - 1. 역사
 - 2. 제도
- III. 독일어교육의 이론
 - 1. 학문적 위상
 - 2. 연구 동향
- IV. 독일어교육의 실천
 - 1. 교육과정
 - 2. 교과서
 - 3. 수업
- V. 결론: 시사점

I. 서론

독일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세계 5위권 내의 선진국으로, 우리나라의 법제 등 기반 체제의 모델을 제공한 나라이기도 하다. 다른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보다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하는

* 이 연구는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교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공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경향이 있고 사회보장 제도가 비교적 튼튼하여 사회가 안정적이다. 또한 경쟁 분위기가 다른 선진국이나 우리에게 비해 매우 적다. 민족 기질은 보수적이라고 평가되고, 다양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교육은 이런 안정된 사회적 기반 위에 보수적이면서 다양성을 추구하고, 중립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인간의 형성을 지향하는 맥락 위에 있다.

독일어는 백년 남짓 되는 통일의 역사 속에서, 통일 국가의 의사소통을 원만히 하게 하는 공용어일 뿐만 아니라, 게르만민족과 통일 국가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수단이다. 독일어와 그 문화는 과거에는 프랑스어에 현재는 영어에 빛이 가려 국제적으로는 크게 조명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교육을 실용화하려는 생각과 민족의 자부심을 강화하려는 욕구를 결합하여 독일어교육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이러한 독일과 독일어의 배경 위에, 본고는 독일어교육(독일 자국어교육)의 틀과 내용,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독일어교육의 역사적 흐름과 제도적 틀을 살펴 독일어교육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현재 독일어교육의 연구 현황을 독일어 교과교육학의 위상과 연구동향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독일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을 대상으로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찰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독일어교육이 우리의 국어교육에 시사를 줄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은 무엇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관찰과 분석은 우리 국어교육의 방향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II. 독일어교육의 배경

1. 역사

근대 학교교육 초기의 독일어교육은 고대언어(라틴어, 그리스어)에 밀려 근근이 존재하였다. 독일 통일을 주도했던 프로이센은 김나지움에서 32시간 중 4시간만 독일어에 할애했는데, 이것은 라틴어나 그리스어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었다. 당시 엘리트의 표준은 고대 문헌학으로서, 독일어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있는 하찮은 교과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독일어가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민족주의적 인식이 정치적으로 강조되면서였다. 독일의 통일을 즈음해서 통일대제인 빌헬름Ⅱ세가 김나지움 교육의 목표를 세계적 안목과 민족주의를 갖게 하는 것으로 천명함으로써, 독일어 교과는 '민족 교육적 과제에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교과'가 되었다. 독일어 교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국의 문학사'를 배우는 것으로 굳어졌고, 이에 따라 '괴테, 실러' 등의 독일 고전주의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격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더욱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 와서 독일어는 당시 가장 중요한 언어로 여겨지던 라틴어와 겨룰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프로이센의 문화국이 독일어교육에서 민족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하고(1924년),¹⁾ 나찌 시대에 독일어 수업이 더욱 많아지면서, 독일어교육에서 민족주의가 '비극적으로'²⁾ 첨예화되었다.

이렇게 민족주의 흐름 위에 있던 독일어교육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서독이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면서였다. 미국의 기능 중심의 언어교육을 수용하여 교육과정에서 언어의 기능을 강조하고, 언어기능을 분석적인 체제로 다루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독일문학으로 채워지던 독일어 수업은 언어기능을 강조하는 패러다임 위에서도 계속 연장되어, 문학이 여전히 가장 강조되었다. 그런 한편, 문법은 지식체계를 유지하면서 그 실용화 방안을 찾으려 하였다.

이러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경향은 현재에도 여전히 같은 기초를

1) 독일어 수업의 목표를 '독일어로 말하고 생활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독일식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바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비극적'이란 말은 독일인들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유지하고 있는데, 1985년부터 점차 언어 현상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통합의 경향은 꾸준히 강조되어 그 범위와 깊이 면에서 더욱 강력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현재 독일어 교육체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다.

더불어 동서독의 통일과 유럽연합 형성으로 거의 모든 교과에서 '문화'가 핵심 관심사가 되어, '문화'를 또 하나의 화두로 강조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심을 독일어교육이 다른 교과와 더불어 일정 정도 소화해 내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편승하여 자국의 문화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또 최근 PISA의 결과가 저조하면서³⁾ 교육의 체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국가수준의 평가 기준' 제정과 교사양성과정의 개혁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⁴⁾ 한편, 사회구조의 변화로 이민 노동자와 그 자녀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제이언어로서의 독일어교육을 토착 독일인들의 모어교육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고민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현안은 우리 국어교육의 역사를 반추하고 현재를 가능하게 한다. 우리의 국어교육에도 민족주의와 기능주의가 교차하였고, 중앙집권화와 제도화를 꾀하는 독일과 달리 다원화와 탈제도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양립하기 어려운 두 차원을 슬기롭게 조화시켜야 할 과제를 모두 안고 있다. 모어가 아닌 제이언어로서의 국어교육 또한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가 맞게 될 문제일 수도 있다.

3)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독일은 31개국 중 독해력 21위, 수학과 과학 능력 각각 20위의 성적을 얻었다.

4) 독일의 유명한 시사잡지인 'Der Spiegel'은 독일 교육의 첫 번째 문제가 교사의 질 관리라고 보도하며 특집 기사를 실었다. 교사들이 대체로 타성에 젖고, 대학처럼 모든 시험을 교사별로 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의무적인 교사는 바깥 수밖에 없고, 나태한 교사도 65세 정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꼬집었다. (Der Spiegel, 46, 2003: 46-68)

2. 제도

독일은 만 7세에 입학하는 4년제 초등학교인 그룬트슐레(Grundschule)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된다.⁵⁾ 그룬트슐레에서는 8개의 교과가 있고, 그 중에 독일어 교과에는 25.5%의 시간이 할애된다. 우리와 같이 한 교사가 25~30명으로 구성된 한 반을 지도하는데, 보통 1~2학년, 3~4학년의 2년간을 같은 학생을 지도한다. 그리고 1·2학년은 등급화된 평가를 하지 않고 학습자의 특성을 기술하며, 3·4학년은 등급화된 평가를 하며,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 유급시킨다. 그리고 대체로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중등학교의 진학을 교사가 결정한다.

중등학교에는 실업학교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와 인문중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 그리고 실업과 인문 교육을 절충한 레알슐레(Realschule)가 있다.⁶⁾ 이 중 김나지움은 우리의 인문계와 비슷하고 레알슐레와 하우프트슐레는 실업학교와 비슷하다. 김나지움에서는 1~10학년까지는 공통으로 11개 교과가 있는데, 독일어는 12%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 그리고 인문계와 자연계에 따라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이 있으며, 졸업자격시험인 아비투어(Abitur) 준비를 위해 교과를 선택적으로

5) 현재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의 두 개 주만이 6년이다.

6) 독일의 학제표

초등학교 (1~4학년)						
예외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주 (1~6년)						
5학년	중등교육 1단계	김나지움 (인문중학교)	레알슐레 (실업학교)	하우프트 슐레 (실업학교)		종합학교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6학년				보충 과정	직업 교육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중등교육 2단계	김나지움 (인문중학교)	전문학교		취업	각과정에 따름
12학년			보충과정	취업		
13학년						
	고등교육	대학교	전문대학	전문대학	취업	취업

다른다. 아비투어는 현재 바덴뷔르템베르그(Baden-Württemberg) 주의 경우, 쓰기시험 3과목과 구두시험 1과목을 보는데 독일어와 수학을 필수로 포함하여야 한다. 물론 아비투어도 대부분의 주에서 각 학교별로 담당 교사에 의해서 치러지며, 이 결과와 고학년의 내신을 합산하여 대입전형 시에 활용한다.⁷⁾

김나지움 역시 25~30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우리의 중등학교와 같이 교과별로 교사가 가르친다. 그런데 한 교사가 대체로 두 개의 복수 교과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 특이하다. 이것은 교사양성 과정에서 전공과 부전공의 복수전공을 갖게 함으로써 가능한데,⁸⁾ 교사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한 교사가 역시 2년 정도 동안을 같은 반을 담당한다. 그리고 등급화하는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각 교사가 각 반에서 하는 평가로서 학년전체에서 또는 교사 상호간에 비교되지 않는다.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은 각 주별로 해당 주의 교육국에서 관할한다. 최근 국가 수준의 기준(national Bildungsstandards)을 개발하여 이것을 지침으로 주별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⁹⁾ 지금까

7) 바덴뷔르템베르그 주는 주 교육국에서 문제를 출제하고 1차 채점을 하며, 2차 채점은 각 학교에서 한다. 이러한 중앙관리가 PISA 평가에서 바덴뷔르템베르그 주의 성적이 다른 주보다 좋게 나타난 원인의 하나로 분석하기도 한다.

8) 인문/사회계열과 자연과학계열에 걸치는 복수전공도 가능하며, 매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9) 2003년 12월에 독일어, 수학, 제1외국어 과목에서 10학년 이후 도달해야 할 수준을 정리한 국가수준의 교육기준이 발표되어, 2004년이나 2005년에 모든 주에 적용하고 2006년에 검사하는 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이것은 교육과정을 구성하기 위한 지침이 아니라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 기준을 설정한 것인데, 실제로 평가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 기준을 중심으로 김나지움 고학년의 교육 방향은 결정된다. 그러나 2003년의 경우 국가수준의 지침이 나오기 전에 여러 주에서 이미 자기 주의 교육과정을 완성하여 발표하여, 실천 여부는 불확실하다.

2003년에 발표된 국가수준의 교육기준과 여러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교육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고, 여러 차례의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신 Pädagogisch Hochschule Freiburg(프라이부르크 교육전문 대학교)의 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독어독문학과)에 있는 Ingelore Oomen-Welke 교수께 이 자리를 빌어

지 주별로 달랐던 교육과정은 교과교육 이론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관성이 보장된다고 한다. 교육과정의 개발은 해당 주의 교육기관 관계자와 해당교과 관련 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교육과정은 대체로 10년을 주기로 개정되는데, 필요한 경우 1년 내지 1년 반 정도마다 수시로 부분적인 수정을 한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1994년에 개정된 것으로, 2004년 10월 새학기부터는 거의 모든 주에서 개정된 새 교육과정이 시행된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맞추어 개발되는데, 다양한 교과서를 출판사가 교수나 교사진으로 구성된 집필자와 계약하여 자유롭게 만들고, 주교육국의 검정 심사를 거쳐 출판된다.¹⁰⁾ 독일어 교과서에는 그룬트슐레의 경우 기본 교과서인 국어책(Sprachbuch)과 읽을 글만을 모아 놓은 읽기 책(Lesebuch), 그리고 국어책에 부속된 학습장(Arbeitshefte), 교사용 지도서(Lehrerband)와 이에 부속된 학습지와 사용법책(Lehrerbandbuch mit Kopiervorlagen für Sprachbuch) 등의 다섯 가지가 정도가 있다.¹¹⁾ 학생들은 이 중 교사용 도서를 제외한 세 가지 교재를 받는데, 이것의 활용은 교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세 교재를 연결해서 학습하게 한다.¹²⁾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나 그 부속책에는 수업에 필요한 학습지가 다양한 내용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어, 교사는 이들 학습지를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과제로 나누어 줄 수 있다.

주 교육국은 새로 출판된 교과서를 일정 기간별로 모아서 교사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교과서가 교육과정 개편과 함께 일제히 출판되는

감사드린다.

- 10) 교과서 제작과 관련하여, 개정된 교육과정이 발표되어 시행되기까지의 시간이 한 학기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개발된 교과서를 교육과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이다.
- 11) 이것은 일관된 체제는 아니고, 출판사별로 그 구성과 명칭이 다르다. 그러나 학생용 기본 책과 읽기 책,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의 개념이 주축을 이룬다. 그런데, 그룬트슐레와 김나지움 저학년에서는 이러한 교과서 세트가 대체로 유지되지만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용 기본 책인 국어책(Sprachbuch)만 있거나 읽기 책(Lesebuch)이 더해지고 기타의 보조교재는 없는 식으로 교재가 단순화된다.
- 12) 학습장(Arbeitshefte)이 있는 경우,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국어책(Sprachbuch)은 재활용한다.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거나 새로 출판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비교적 큰 도시에는 교과서만 전시해 놓은 사무실이 있어 교사들이 언제든지 참고할 수 있게 한다. 교수학습 교재로는 교과서 외에도 주 교육국이나 교사, 출판사가 개발한 카드와 게임, 슬라이드, 비디오 등이 다양하게 있어 활용한다.

독일어 교사의 양성은, 김나지움 교사의 경우 일반 대학교(Universität)의 독어독문학과에서 공부하면서 다른 하나의 부전공을 이수하고, 교육학 과목을 수강한다. 이 중에 교과교육학에 대한 강좌는 포함되지 않는다.¹³⁾ 이 과정을 마친 후 2년간 정규교사의 70%의 보수를 받으면서 수습교사로 실습을 받는데, 처음 1년은 정규교사의 참관 아래 수업지도를 하며, 매주 실제 지도 방법과 관련한 세미나 강좌를 수강한다. 이 과정이 끝난 후 교사자격 시험을 보며, 실습 점수와 합산하여 교사 발령과 지역 선택에 우선권을 갖는다. 지금은 실습 기간을 늘이고, 학교 재학 기간 중부터 실습을 받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그룬트슐레와 레알 슐레, 하우프트슐레의 교사는 4년제 교육 전문학교인 페다고기쉬호크슐레(Pädagogisch Hochschule)¹⁴⁾에서 양성되는데, 실습과 교사자격 시험을 거치는 것은 같다. 이 교육 전문학교에서 독일어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의 명칭은 '독일어문학(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이고 전공 교수의 구성은 교수학습 방법론(didaktik), 독문학, 독어학의 세 분야이다. 그리고 일반 대학교와 교육 전문대학교 모두에서 독일어교육을 전공하는 박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와 같이, 독일어교육을 둘러싼 제도는 학제나 체제 면에서는 우리

13) 대부분의 교사가 실습을 나가서야 교육과정을 처음 보게 된다고 한다.

14) 4년제 교육대학교로서 김나지움을 제외한 다른 모든 학교의 교사를 다 양성한다. 규모와 체제는 우리나라의 교육대학교와 비슷하다. 이러한 제도는 김나지움은 전통적으로 학문성을 강조한 데 반해, 여타의 학교는 기술적 측면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교사 양성 과정을 달리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페다고기쉬 호크슐레를 졸업한 교사가 하우프트 슐레와 그룬트슐레의 두 학교를 동시에 모두 가르치고 있는데, 대개 두 학교가 같이 있거나 인접해 있어서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두 학교급에서 필요한 교사의 자질이 같은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와 유사한 틀이 있지만, 세부적인 운영 면에서는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수업과 평가에 대한 교사의 권한이 매우 큰 것이 다르다.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전제해야 가능한, 2개 학년 연속 담임제 운영이나 어떠한 비교도 하지 않는 절대평가, 상급학년 진학과 졸업시험에 대한 교사의 역할 등은 그 신뢰와 권한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 교육과정을 약 10년을 주기로 개정하지만 수시로 부분 개정이 가능하고, 교과서의 제작과 보급이 유연하다. 또한, 교사 양성에는 '학문'과 '기술'을 구분하는 전통적인 사교의 영향이 아직도 큰 것 같다. 학교 교육을 두 가지 분류하여 학문 지향적인 김나지움의 교사는 종합대학 일반학과에서, 기술 지향적인 기초학교와 실업학교의 교사는 교육전문학교에서 양성하는 이분 체계는 이러한 결과이다. 이런 차이점은 우리가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할 바이다. 독일은 지금 이런 제도, 특히 자율적 운영과 교사양성과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III. 독일어교육의 이론

1. 학문적 위상

독어교과교육학에 대해서 개관하고 반성한 최근의 논문(Kämper-van den Boogaart, 2003c: 75-77)에서 '독일어 교과교육학(Fachdidaktik der Deutsch)은 작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독어독문학이 아니다'는 주장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아직도 '독일어 수업이 대학 독어독문학의 축소판이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비판하고 독일어교육의 성격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교육학으로서 독일어교육은 그 탄생에서 '직업학문'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교사 채용 시험에 종속된 특정 수업방법의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관련 출판물이 기존의 수업 모델을 분

석하는 저널리즘적 수준인 것이어서, 교과교육학에 대한 폄하는 뿌리깊다고 한다.

그러나 교과교육학적인 인식은 분명히 있는데, 학교교육은 교양교육이지 전문적 학문 교육이 아니라는 전제를 갖고서, 교육의 구상은 세계에 대한 통찰에서 나오는 것이지 학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입론한다(Kämper-van den Boorgaart, 2003c: 80-83). 그래서 학문적 이론이 실제 통합되어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이론과 실제의 연결점이 교과교육학이어야 한다고 보고 독일어 교과교육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한다. 독일어 교육학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 대학에 교과교육학 정교수 자리를 도입하여 독문학과나 교육학과 내에 두었다.¹⁵⁾ 1996년에는 학문적인 교과교육학을 위한 학술지 'Didaktik Deutsch(독일어 교수법)'이 1975년에 창립된 'Deutschdidaktik Symposium'에서 발간되어 1년 2회 발행되면서 학문으로서의 독일어교육의 논의를 심화시켜 가고 있다.

독일어교육의 연구 분야는, 독일어교육의 개론서에 해당하는 대학 교재를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Kämper-van den Boorgaart Hrsg., 2003a). 독일어교육 일반론과 문학(문헌)교육¹⁶⁾, 언어교육, 교수법이 그것이다. 독일어교육 일반론에는 '지도 계획, 미디어 교육, 통합적 독일어교육, 다문화 사회에서의 독일어교육, 교과 교육과 연구' 등의 주제가 다루어진다. 문학교육 분야에서는 '텍스트 다루기, 정전 문제, 생활 속의 읽기, 과정 중심 문학 교육, 읽기 교수법' 등이 다루어진다. 언어교육 분야에서는 '언어학습, 쓰기, 말하기와 듣기, 정서법' 등이 다루어지며, 교수법 일반에서는 '교수법 이론'이 다루어진다.

최근 발간된 논문집에서는 연구 항목을 '언어와 언어교육, 말하기와

15) 그러나 실제로는 매우 소수에 그쳤고, 독문학 교수들은 회의적 반응을 보였으며 최근 진축재정으로 이 자리를 다른 전공에 내주기도 한다고 한다.

16) 일반적으로 '문학교육'으로 번역되는 'Literaturdidaktik'은 엄격히 문학작품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폭넓게 '읽기교육'을 의미한다. 'Literatur'는 문학이라기보다 문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 명칭하의 연구와 교과서는 문학작품 외에 비문학작품도 포함하고 있다.

듣기, 쓰기과정, 작품, 정서법, 문법, 읽기, 교수 학습의 프레임, 교수방법론, 텍스트와 치유와 처방, 다른 나라의 학습'으로, 위에서 나눈 네 가지 분야를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다(Bredel, U. et al., 2003). 이들을 통해 독일어교육의 이론적 기반에는 문법과 정서법을 다루는 언어학(독어학)과 문학 작품의 읽기(이해)를 다루는 문학(학), 교수법을 주로 다루는 교육학, 학습의 과정을 다루는 인지심리학, 그리고 그 외에 미디어, 문화론 등이 독일어 교과교육학을 이루는 학문분야이다.

2. 연구 동향

독일어교육은 '대상중심(문학, 문법의 내용 중심), 학습목표중심(결과 중심), 학문준비를 위한 학습'의 개념 위에 출발하였다. 이후 70년대 의사소통 이론이 도입되었는데, 발신자와 수신자를 텍스트가 매개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이 독일어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함이 주장되었다. 이어 80년대에는 '언어를 통한 행위', 즉 언어활동(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이 독어교육연구의 중심 주제가 되었다. 85년에는 70년대부터 무르익어 오던 통합적 지도의 논의가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분석적인 접근에서 통합적인 접근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90년대 들어 인지론적 구조이론을 중심으로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이행되었다. 또한 교사의 역할을 자료 전달자에서 개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열린 학습과정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하면서 '학생중심'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 외에도 90년대의 관심사는 언어의 기능과 문어습득 과정과의 연결, 범교과적 쓰기, 문어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등이었다고 한다.

현재 이러한 통합적이고 과정 중심적인 접근법이 큰 줄기를 형성하면서, 2004년 국가교육과정 신설과 각주 교육과정 개정의 이론적 중심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과교육학의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으로, 교과교육학적 지식이 실제로 유용한가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을, 어떤 학년에,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즉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관심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점

을 지적한다(Kämper-van den Boogaart, 2003c: 93).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언어(문법) 영역은 '내용'과 '방법'의 선택적 강조에 따라 내적 논리를 전개해 왔다.¹⁷⁾ 70년대에는 구조주의와 변형생성문법의 언어학적 토대 위에서 '내용 중심, 민족 언어 중심'을 지향하였다. 그러다가 70년대 말부터 '의사소통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어, 학생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 상황에 맞는 문법의 지도를 의도하고 상황에 맞는 문법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그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실제 수업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언어와의 연관성을 일깨우기에 부적절하며, 최소한의 문법 전달조차 하기에 부적절하였다고 평가한다.

이 시기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통합적인 문법 수업이 제안되었는데, 문법을 독일어교과 전반에 일관성 있게 끼워 넣음으로써 의사소통의 언어적 수단으로서의 문법의 기능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현재까지 '좋은 중용의 길'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통합의 형태에서 90년대에는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가 내용적 개념에서 방법적 개념으로 전환하여,¹⁸⁾ 문법을 탐구의 대상으로 두면서 학습하게 하는 것이 논의되었다.

현재는 다시 내용적 개념에 대한 관심으로 논의의 무게중심이 옮겨지면서, 그동안의 문법 교육이 교사와 대학생의 문법 지식 결함을 낳았다고 비판하며, 체계적인 문법 수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그러나 문법을 지식 체계로서가 아니라, 첫째,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으로써, 둘째, 언어행위를 일으키는 사회적 조건과 전제 조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즉 '언어의식'¹⁹⁾으로서 다루어질 것을 목표로한다. 언어를 탐구하는 언어학적 토대는 광범위한 행위중심적인 언어 개념에

17) 이하 문법교육에 대한 내용은 Steets(2003: 210-231) 참조.

18) 이 전환의 계기는, 문법 수업에서 행위 중심, 생산 중심 방법이 도입됨에 따라 이것이 문법 수업에 행위 중심, 발견 중심으로 적용된 것으로 본다.

19) '언어행위를 일으키는 사회적 조건과 전제 조건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언어에 관해 성찰하게 하는 것'이라 한다.

있어야 하며, 그 성과로 문법수업이 언어능력과 언어행위능력을 형식과 기능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로써 다른 영역(작문, 문학 등)에서 언어에 대한 학습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문학영역은 1960년대까지는 구조주의 비평의 관점 아래 작품의 내재적 해석에 몰두하였으나, 60년대 말에 비판적 독서를 강조하였다.²⁰⁾ 문학교육이 개인의 정서적 성장을 의도하는 것으로보다 사회적 변화과정에 대해 합리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보았다. 동시에 수용미학의 관점에서 학습자의 수용 중심적 교육을 의도하였다. 70년대에는 독어교육 전반에서 의사소통 이론이 중심으로 논의되었는데, 그 영향 위에 문학적 소통 개념을 다의적 문학작품의 생산, 중개, 수용의 구도에 놓아 문학작품의 권위보다 학생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80년대에는 행위 중심으로 옮겨져 변형하기, 장르바꾸기, 연극하기 등이 주류가 되었다. 90년대에는 포스트모더니즘적 문학교수법 논의로 상호텍스트성과 패러디가 주목받았다.

그러나 문학 교육에서 일관되게 관심 갖는 요소는 '문학을 통한 사회화'와 '정전(canon)의 문제', 즉, '문학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문학텍스트를 이해한 것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 방식이 있는가?' 등이다. 이들 문제를 다루는데 대체로 하나의 대답이 있을 수 없다고 결론짓지만, 학습자의 개별적 주관성을 얼마나 인정하는가가 논의의 핵심에 있다(Kämper-van den Boogaart, 2003c: 92).

IV. 독일어교육의 실천

1. 교육과정

교육과정(Bildungsplan)은 학교급별로 작성되어 있다.²¹⁾ 각 학교급

20) 이하 문학교육에 대한 내용은 Matthiessen(2003)과 이광복(1999) 참조.

의 교육과정은 일률적인 체제를 갖고 있는데, 첫부분에 해당 학교급의 교과편제표를 신고, 다음에 각 교과목의 목표와 지도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일반론을 담고, 마지막에 학년별로 각 교과목의 자세한 지도 내용을 표로 정리한 각론 부분을 실었다. 이 중 특이한 것은 일반론과 각론을 교과별로 함께 넣지 않은 점이다. 각론도 교과별 내용의 계열성보다 한 학년에서 개별 교과 내용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교과별 편성이 아니라 학년별 편성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그룬트슐레는 독일어교육에 26.5%의 비중을 할애하며,²²⁾ 특징적인 것은 '통합교과적 주제(Fächerverbindende Themen)'를 각과의 교육과정보다 앞서 첫머리에 고시하는 것이다. '통합교과적 주제'는 개별교과와 대등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으며, 각 교과목의 교육과정과 기술 형식도 같

21) 여기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그룬트슐레와 김나지움 두 개 학교급의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이것은 1994년에 전면적으로 개정되고 1999년, 2000년 등에 부분적으로 수정되어 2004년 여름까지 적용되는 것이다. 대략 10년을 주기로 교육과정을 개정하던 관례와, PISA를 계기로 교육을 질을 국가가 중앙관리하고자 하는 정책에 맞추어 2003년 가을에 '국가수준교육지침'의 초안이 마련되고, 각 주에서는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가,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2004년 봄에 확정하여 9월부터 적용된다. 연구자의 연구기간 말인 2003년 하반기에 마련된 안에 대하여, 개발에 참여한 교수는, "개정의 방향은 큰 틀은 유지하되 통합을 더욱 유기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라 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의 현장 적용 실험 연수를 다녀온 그룬트슐레 교사에 따르면, 교과간의 과감한 통합이 적극 반영된 것 같다고 한다.

22) 그룬트슐레의 교과편제표. 2004년에 개정되는 새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다.

교과	학년				계
	1	2	3	4	
종교	2	2	2	2	8
독일어	6	6	7	7	26
고장과 사회	3	3	3	3	12
외국어	2	2	2	2	8
수학	4	5	5	5	19
미술과 작품	1	2	3	3	9
음악	1	1	1	1	4
스포츠	3	3	3	3	12
계	22	24	26	26	98
지원과 촉진	2	2	3	3	10

아서 각 주제별로 목표가 상술되고, 구체적인 활동내용이 명시되며, 활동내용별로 예시 설명이 있고, 교과별 관련 단원을 제시한다. 통합적 주제는 1/2학년은 '일상생활의 변화와 리듬'을, 3학년은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 의미'를, 4학년은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다.²³⁾

그룬트술레의 독일어 교육과정은 일반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²⁴⁾

출발점 : 어린이가 이미 갖고 있는 언어능력을 활용하여야 하고, 모든 수업이 다 독일어를 가르치는 시간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목표 : 어린이의 구두 언어활동을 고무하며, 문자 문화에 입문시키고 이를 전개시킨다. 이를 위하여 언어활동을 제공하고, 이 언어활동(언어경험)을 통해 언어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도내용과 방법 : 함께 말하기 - 말을 듣는 상대방과 내가 말할 내용에 맞추어서, 서로 함께 제대로 이야기하게 하는 것을 다룬다. 어린이의 수준과 생활, 상황에 맞게 말하게 하고, 그룹에서 말할 때는 특히 청자를 의식해서 말해야 함을 가르친다. 또한 표준어를 쓰게 하는 것도 중요하며, 교사가 모범이 되게 한다.

읽기 : 생활에 도움이 되고 개인의 인격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찾게(알게)하고,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게 한다. 특히 미디어 때문에 접할 기회가 적어지는 책을 취미로 읽게끔 동기 부여를 많이 하여야 한다. 문학책을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있도록 하고, 어린이 잡지를 많이 활용한다.

문법 : 이미 사용하고 있는 언어 내에서, 어린이의 언어 사용과 맞는 데에

-
- 23) 통합교과적 주제는 구체적으로 1/2학년은 '1) 나는 이름이 있다, 2) 우리 주위의 수와 형태, 3) 봄, 4) 우리는 불빛 속에서의 인도로 강림절과 성탄절을 경험한다, 5) 책 만들기 6) 추수감사절, 7) 공간 활동, 8) 물건이 우리를 둘러싸고 변화시킨다, 9) 교환-지불-소망-필요, 10) 듣기-이해하기-자기 이해하기', 3학년은 '1) 공간과 움직임-움직이는 것 만들기, 2) 바퀴(운송수단) 만들기, 3) 인형극(동일시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대화하고, 스토리 쓰기, 4) 친구 갖기-친구 되기, 5) 흔적찾기 : 우리가 사는 땅은 역사를 갖고 있다', 4학년은 '1) "불새", 전래동화를 테마로 한 발레, 2) 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3) 불-원시적인 것의 문명화, 4) 문자와 문자문화, 5) 신물이자 과제로서의 창조이다.
- 24) 각론은 [부록]으로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하 지도 내용의 배열 순서는 교육과정 원문의 순서를 따른다.

서 시작하여 문법의 구조를 가르치도록 한다. 문법 용어의 학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요한 문장(문형)의 연습을 많이 하도록 한다.

쓰기 : 쓰기는 어린이의 정신 발달에 매우 중요하므로, 학교에서 특별히 중시해서 가르쳐야 한다. 쓰기는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구성(gestalten)하는 것이고, 또한 사회적 규범에 따라야 하는 것임을 가르친다. 쓰기의 각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쓰기 과제를 주도록 한다. 특히, 3, 4학년에서는 글씨를 정확하고 깨끗하고 빨리 쓸 수 있게 하고, 기본 서체를 가르친다. 기타 연필잡기, 쓰는 자세, 의자 앉기, 왼손잡이의 쓰기에 주의를 기울인다.

정서법 : 언어관찰 영역과 밀접하지만, 읽고 쓰는 모든 활동과 관련한 다층적 과정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 그룬트슐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장되어 학습되도록 한다.

김나지움에서는 필수교과와 선택교과가 있는데, 필수교과로서 독일어교육은 12.1%로 학년마다 적용된다.²⁵⁾ 특징적인 것은, 그룬트슐레

25) 김나지움의 필수과목 교과편제표. 2004년에 개정되는 새 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다.

교과	학년						계
	5	6	7	8	9	10	
종교/윤리	2	2	2	1	2	2	11
독일어	5	4	4	3	3	4	23
지리	2	2	2	-	-	1	7
역사	-	2	2	2	2	1	9
사회	-	-	-	2	2	-	4
외국어 1	5	4	4	4	3	3	23
외국어 2	-	4	5	4	4	3	20
외국어 3	-	-	-	5	4	5	14
수학	4	3	5	4	4	4	24
자연	1	1	-	-	-	-	2
물리	-	-	2	2	1	2	7
화학	-	-	-	2	2	2	6
생물	2	2	1	-	2	1	8
스포츠	3	3	3	3	2	2	16
음악	3	2	1	1	1	1	9
미술	2	2	1	1	1	1	8
계	28	31	32	32	33	34	190
보충	12						202

처럼 모든 교과에 적용되는 통합적 주제는 아니지만, 독일어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공통 주제를 명시하고 있는 점이다. 김나지움 독일어 교육 과정의 일반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표 : 독일어교과는 청소년에게 언어적인 교육과 문학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모국어를 의식적이고 자립적이며 창조적으로, 그리고 규범적으로 양면적인 특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학생들의 개성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사는 것을 배우게 한다.

문학작품을 다루는 것은 상상력을 증진시키고 인간적인 경험의 근본형상이나, 세계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모습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독일 문화의 언어적 차원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사회적 조건, 미학적 형상, 철학적 사고의 관점에서 시대적 특징, 역사적 발전과정, 낯선 표현 방법과 현실 스케치를 깊이 이해하고 비판까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동일시(Identifikation)와 거리두기(Abgrenzung)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세계를 해석하는 것과 삶의 태도를 역사적으로 조건짓는 것들을 인식하게 하고, 이로써 관용을 배우고 이데올로기적으로 단순화된 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모국어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 표현 능력을 발전시켜 의식화되고 다양화된 언어사용을 할 수 있게 한다. 언어와 사고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독일어 수업은 논쟁하고 추론하고 형상화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들 활동에서 인지적인 사고 방법뿐만 아니라 정서의 발전도 촉진해야 하므로, 감성·이성·상상과 분석적 사고, 감정이입 능력과 비판 능력, 인생의 의미와 가치관의 문제에 대해 숙고하는 것, 스스로 책임을 지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등을 수행하게 한다. 이로써 독일어 수업이 인간 상호간의 소통 문제에 기여하고 동시에 자의인식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독일어 수업에서는 혼자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대화나 토론은 물론이고, 상대방을 정하여 놀이를 하고, 부모나 교사와 수업 외에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독일어 수업의 언어는 표준어이다. 그러나 사투리의 가치를 인정하는 내에

서 표준어를 가르쳐야 한다.

독일어 수업은 통합교과적 수업에 적합하며, 또한 통합교과적 수업이 필요하다. 통합교과적 주제로 삶의 이들을 다루는 것이 좋다. 1) 성 : 다른 역할 같은 권리, 2) 세대간 관계 : 연령구조, 3) 독일거주 외국인의 통합성 문제, 4) 여러 문화의 만남, 5) 폭력과 갈등 해결, 평화 수립, 6) 유럽통합과 하나의 세계를 위한 책임, 7) 환경문제와 미래보장. 각 교과와 독일어 수업의 각 영역에서 '주제'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수업하되, 목표와 내용에 따라 중점을 달리한다.

지도내용과 방법 : 말하기와 쓰기 - 상황과 상대방에 맞게 표현하는 언어 행동을 고무한다. 말하기와 쓰기는 같은 비중으로 다룬다. 듣기와 읽기와도 같은 비중이다.

정서법 : 정서법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규범적 쓰기가 수업 단위의 대상이고 지속적인 수업 원칙이 되어야 한다. 글씨의 외형적 형태도 계속 주의를 기울인다.

문학, 비문학 텍스트, 미디어 :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비중이 큰 것)은 문학작품이다. 작품의 내용, 형식, 의미, 작가 의도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텍스트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이것을 쓸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문학 수업에서는 학생 자신들이 각각 느낀 것을 전달해야 한다. 학생 개인의 미적 이해를 적합한 개념으로 포착하고,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유를 들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해석 가능성의 장을 만들고, 한 가지의 해석을 거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창조적인 읽기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 특히 시 작품은 외워서 낭송할 수 있도록 한다.

기본과정(Sturstufe, 5-10학년)에서는 문학사에 대해 일별할 수 있도록 한다. 시적 문학작품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작품의 구조와 문제점을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고,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심화과정(Oberstufe, 11-13학년)에서는 작품 해석의 여러 방법론을 배우고, 내용적 문제설정과 이론적 문제설정이 어떻게 다른지를 배우며, 문학사적 연관성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키고, 문학적 가치부여에 대한 전제조건들을 만들어내게 한다.

문학에 할당된 수업 시간의 절반 정도는 독서목록에 있는 작품을 다루어야 한다. 기타 작품을 선정할 때는 하나의 관점만 있는 세계관이나 정치적 영향을 갖는 작품을 다루지 않도록 주의한다.

비문학 텍스트와 미디어는 학생들에게 텍스트를 자립적이고 비판적으로 다

를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주어야 한다.

문법과 언어관찰 : 말하기와 쓰기, 텍스트 이해와 연관이 있지만, 언어의 법칙성과 가능성을 알게 하는 데에 핵심이 있다. 이를 위하여 (문법지식의) 체계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언어 현상의 기능을 고찰하는 것을 전면에 세워야 한다. 체계보다 기능이 더 깊은 언어 사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기본과정에서는 언어의 본질과 언어의 발달, 인간 사회에서 언어의 중요성에 관한 통찰을 배우게 한다. 언어표현에 나타나는 문법사항을 기술하고 평가하며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다룬다.

심화과정에서는 언어철학적이고 언어이론적인 문제를 함께 다룬다.

이런 설명에서 독일어교육의 이론적 흐름이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언어활동의 통합성, 문학 및 이해활동의 학습자 중심성, 문법의 기능성 등이 교육과정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일반론과 각론의 특징을 종합하여 분석하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첫째, 독일어 교과를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통합하였다. 말하기와 쓰기의 표현 영역, 문학적·비문학적·미디어적 텍스트의 이해영역, 문법적 특성을 다루는 언어 영역을 설정한다. 동시에 각 영역의 세부 설명에서는 영역간의 연결과 통합을 계속 제안하고 설명한다. 둘째, 각론 구성의 체제에서 지도내용을 그 중요성에 따라 기본/필수/제안 항목으로 설명하여 많은 내용을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각 항목마다 예시활동이나 세부설명을 더하고, 통합할 수 있는 관련 단원이나 교과를 소개하여 통합을 조장하였다. 셋째, 공통주제를 설정하여 통합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무엇보다 의미있는 언어활동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교재 구성에서 소재 선정의 지침을 제공하였다. 넷째, 기능(전략)적이기보다 장르 중심적인 구성법을 취하였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반복과 심화의 원리와 달리, 학년별로 특정 장르를 굵직굵직하게 배치하고 있고, 여타의 항목도 장르적 특성을 살리고 있다. 다섯째, 이론적 연관성보다 실천적 연관성을 더욱 중시하여 내용을 편성하였다. '정서법'을 '언어관찰' 영역이 아니라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 다룬 것과 같이, 실제의 사용현상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이에 더하여, 각 영역별 특징도 보인다. '말하기와 쓰기' 영역에서는 그룬트슐레와 김나지움을 막론하고 '서로 이야기하기' 또는 '함께 말하기'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그룬트슐레에서 '쓰기' 영역을 '글자쓰기', '텍스트 쓰기', '정서법'으로 나누어, 그 성격을 분명히 구별한다. 지도방법에서는 이 세 가지를 연계하게 하지만, 통합적인 경향 속에서도 각 활동의 특성은 명확히 구별하여 밝힌다. 또한 전 학년에서 '쓰기'에 정서법을 동반시키는 것도 특징적이다. '문학, 미디어, 기타 텍스트의 이해' 영역에서는 우선, 문학이 매우 큰 비중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독해 외에 독서가 별도로 있어 책읽기를 강조하고, 읽기 책(Lesebuch)에서 읽을 자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독서목록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²⁶⁾ 또한 시의 이해에서는 암송도 강조한다. '언어관찰과 문법' 영역에서는 지도할 내용을 세분하여 매우 엄밀하게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그룬트슐레에서도 문법 항목을 비교적 조목조목 가르치며, 지도 어휘의 수를 명시한다.

2. 교과서

중심 교재인 국어책(Sprachebuch)을 살펴보면, 그룬트슐레의 교과서는 큰 구성원리가 주제중심인 반면, 김나지움의 교과서는 장르중심이다. 그룬트슐레의 교과특성은 교육과정의 체제에서도 보이듯이 모든 교과를 총괄하는 '통합적 주제'가 있어 개별교과영역의 고유성보다 주제 중심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단원의 설정을 해당 학년에 제시된 다섯 가지의 '통합적 주제'와 일치시키면서, '성'이나 '환경'과 같이 독일의 학교교육의 전 과정에서 강조하는 주제나 '교통규칙'과 '계절'과 같이 일상적인 주제를 다룬다.

26) 김나지움의 독서목록은 '시'는 작가명을 '소설'과 '드라마'는 작품명을 소개하는데, 작가는 60여 명, 소설은 120여 편, 드라마는 30여 편이다. 그리고 외국과 국내, 고전과 현대의 비율은 각각 1대 2정도이다.

그룬트슐레 3학년의 국어책의 구성²⁷⁾

모험의 나라로 함께 가자 (차레)
 날씨에 대해 얘기해 보자 (날씨)²⁸⁾ ⇒ 1) 공간과 움직임
 함께 살기 (가족과 친구) ⇒ 4) 친구 갖기-친구 되기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성)
 이거 한 번 봐 봐 (이야기 만들기) ⇒ 3) 인형극(동일시하고, 반응하고,
 행동하고, 대화하고, 스토리 연기)
 오늘 우리 뭐 먹지 (음식)
 물 없이 살 수 없다 (환경)
 여기가 맘에 들어 (휴가와 지명) ⇒ 5) 흔적 찾기 : 땅의 역사
 모든 것이 돈다 (바퀴) ⇒ 2) 바퀴(운송수단) 만들기
 길에서도 눈을 떠라 (교통규칙)
 우리 옆에 있는 동물과 식물들 (동물과 식물)
 시계절 (계절)
 독서클럽 (독서 장려 활동)
 찾아보기

이런 주제 중심의 단원은 그 내용 전개에서 대체로 다양한 장르의 소재를 포함하면서, 해당학년의 독일어 교육과정의 내용(이야기 듣기, 연극, 정보 전달, 대화, 독서, 매체, 독해, 문장, 형태소, 어휘 분류, 글자쓰기, 글쓰기, 정서법)을 골고루 다루고 있다. 그리고 친숙하거나 관심 있는 소재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룬트슐레 국어책의 단위 전개²⁹⁾
 <모든 것이 돈다>

27) Herbert, M., 2001, *Aventure Land* : Klasse 3, Ernst Klett Grundschulverlag, Leipzig. 그리고, '⇒'표 이하는 단원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 3학년의 관련 통합주제를 연구자가 참고로 제시한 것임.

28) 바람개비와 풍향계 만들기 활동이 있다.

29) Herbert, M., 2001: 99-114. '⇒'표 이하는 내용이나 자료의 성격을 표시한 것임.

굴러다니는 모든 것 ⇒ 〈그림〉

트랙터 - 트랙터가 일을 하는 소리를 담은 ⇒ 〈시〉

어떻게 바퀴가 발명되었나? ⇒ 〈그림〉

롤러스케이트(바퀴 위의 신발) ⇒ 발명에 대한 〈기록 설명〉

세라핀과 놀라운 기계 ⇒ 세라핀은 탐구하는 아이 〈이야기〉

신기한 발명가들 ⇒ 〈전기〉

바퀴달린 것 만들기 ⇒ 재료, 만드는 순서 〈과정 설명〉

난장이 휘벨만 ⇒ 꿈 속에서 바퀴달린 침대를 타고 여행하는 〈동화〉

17분 후에 기차는 떠난다 ⇒ 이야기의 뒷부분을 만들어 보자 〈이야기〉

우리의 첫 번째 '빈'으로의 여행 ⇒ 1762년의 여행과 오늘날 기차나 자동차로 2~3시간이면 되는 여행 〈경험 기록〉

어휘집 ⇒ 바퀴와 관련된 '직업, 로봇, 차' 등의 어휘를 분류하여 목록 만들기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통합성을 완전히 융해하는 방식으로 실현한다. 내용의 계열적 체계성보다 아동들의 흥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을 강조한다. 교과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중심 주제에 대한 지식을 충분히 알고, 중심 주제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최대한 해석하면서 총체적으로 다룬다.

김나지움 교과서의 장르중심 구성은, 그룬트슐레와 달리 독일어 교과의 고유성을 최대한으로 드러낸다. 또한 전략 중심의 구성과 달리 교육과정의 지도내용을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르를 선정하여 그 장르의 이해 또는 표현의 전체 과정을 다룬다. 아래의 예시와 같이 독일어 교과의 교육과정의 지도내용 하나하나를 초점화하는 단원을 설정한다. 단원을 대단원의 큰 범주로 설정하느냐 또는 소단원의 작은 범주로 여러 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활동의 통합성과 초점화 정도가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모든 교과서들이 다 교육과정상의 영역분류('영역1 : 말하기와 쓰기', '영역2 : 문학, 비문학텍스트와 미디어', '영역3 : 언어관찰과 문법')를 반영하고, 각 단원에서 한 장르의 이해 또는 표현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김나지움 7학년의 국어책의 구성³⁰⁾

타인과의 대화 ⇒ 영역1 : 논거 제시하기

설명과 보고 ⇒ 영역1 : 말과 글로 보고하고 서술하기

문헌 읽고 이해하기 ⇒ 영역2 : 텍스트류

요약하기 ⇒ 영역2 : 텍스트를 읽고, 암기하고, 자유롭게 발표하기

청소년 도서 : 간단한 발표로 내용을 소개하기 ⇒ 영역2 : 청소년용 도서
들, 여가 독서

연극하기 ⇒ 영역1 : 형상화 연습들

이야기하기 ⇒ 영역2 :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간의 관련성

매체 ⇒ 영역2 : 다른 미디어들로 여가 선용하기

전문적인 텍스트의 선택과 평가 ⇒ 영역2 : 내용파악과 텍스트의 내용적
문제점 다루기

광고³¹⁾

문법 1 : 동사 ⇒ 영역3 : 간접문형으로 말하기

언어지식 ⇒ 영역3 : 의미론

문법2 : 문장의 성분, 통사론 ⇒ 영역3 : 통사론과 텍스트의 부호

정서법 ⇒ 영역 2 : 정서법

김나지움 교과서의 각 단원의 전개는 생활주변의 친숙한 소재나 관심사를 소재로 문제제기나 동기부여로 시작하고, 과정 중심의 여러 단계를 차례로 밟아 학습 목표에 이르며, 학습 목표를 실생활에서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러한 과정을 아래의 예시에서 보듯이, 한 단원에서 하나의 소재나 주제, 또는 텍스트를 동기부여에서부터 실생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체과정에서 일관되게 사용하여 해당 대상에 대해 심층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현 독일어교육의 학문적 주요 흐름인 통합성뿐만 아니라, 학습자 중심, 과정중심, 행위중심, 실생활 중심의 이론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30) Mayer, D. & Schoebe, G. Hrsg., 1999, *Verstehen und Gestalten B7*, Oldenbourg, München. ⇒표 이하는 교육과정 각론의 해당 항목.

31) 교육과정의 특정 항목과 연관되기보다, 표현과 이해의 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 단원.

김나지음 국어책의 단원 전개

(Mayer, D. & Schoebe, G. Hrsg. 1999: 32-52)

〈설명과 보고〉

1. 설명 : 사건, 주제, 그림³²⁾

1.1. 사건 설명하기

1.2. 주제 설명하기

1.3. 인물 설명하기

2. 보고³³⁾

텍스트1 : 체육관 문에 학생들이 쓴 메모를 관리인이 발견함. 메모의 내용은 불완전한 것으로, "뭔가를 쓰다가 망가뜨렸는데, 용돈을 모아 고쳐주겠다"고 함.

=> 활동 1 : 이 글이 불완전하다. 왜 그런가? 무엇을 보충해야 하는가?

텍스트2 : 체육관 담당관이 글을 쓴 학생들의 자세한 말을 듣고, 학교 당국에 공문을 보냄. 공문의 형식을 보여주고, 내용은 '텍스트1'보다 충실하지만, 모호한 내용이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불완전한 것임.

=> 활동 2 : 잘 이해되는가?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하는가? 쓰는 목적이 무엇인가?

-> 힌트 : 6하원칙

=> 활동 3 : 6하원칙에 따라 글을 다시 조직하기

=> 활동 4 : 체육관 담당관이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손해가 무엇인가? 손해보험은 무엇인가? 보험회사 양식에 맞게 써보자.

-> (적용) : 학교의 양식을 받아서 자신이 아는 손해 사고에 대해 써보자.

=> 활동 4 : 생각해 보자. 체육관담당관이 사건 후 조치를 했을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 상황을 그려보자. 신문에 보도할 글을 쓰는 것을 미리 연습해 보자.

텍스트 3 : 이 사건이 보도되어 기자가 학교에 왔고, 교장, 체육관 담당관, 학생과 각각 인터뷰를 함. 인터뷰 내용이 요약되어 있음.

=> 활동 6 : 기자가 무엇을 물었나? 어떤 답을 하였나? 역할놀이를 해보자.

32) 원리 학습 성격의 단원. 설명의 방법(기술의 방법)을 여러 단계의 절차로 예문을 들어 설명하고, 문제점을 찾게 하고,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터득하게 한다. 그러나 예시 텍스트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분석적 기능 중심의 구성이 아니다.

33) 적용학습 성격의 단원. '보고'를 다루는 일련의 과정을 다룸.

=> 활동 7 : 기자가 인터뷰 내용의 일부에 왜 밑줄을 그었을까? 어떤 내용이 신문에 실리게 될까? 기자가 간접화법으로 내용을 전한다면, 어떤 동사를 쓸까? 시제는? 왜 간접화법으로 쓸까?(밑줄은 연구자 => 각주0)

=> 활동 8 : 기자의 위치가 되어 신문 보도문을 써보자. 표제는? 전문은 6하원칙과 그 중에서 '어떻게'를 강조하여, 인터뷰한 사람 중 한 명에 초점을 맞추어 간접화법으로.

-> (적용) : 신문에서 사건, 사고란을 찾아 읽어보자. 사고나 천재지변 등의 일을 써보자. 우리 체육관의 문제 - 물바다가 된 우리 체육관을 묘사해보자. 기자가 되어 긴장감 있게 보도하는 말을 해보자.

김나지움 교과서의 구체적 전개 내용에는, 위의 예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에서 지도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한 지도방법이나 유의점, 관련단원과의 연결 등을 반영하고 있다.³⁴⁾ 그리고 독일어교과의 공통주제와 교과간의 연결점을 단원의 전개 과정 곳곳에서 또한 반영하고 지원하고 있다.³⁵⁾ 특히 '언어관찰 및 문법' 영역의 단원과 '정서법' 단원은 교육과정에서 구체적 언어활동과 연결해 다룰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교과서 전반에서 드러난다.³⁶⁾

이와 같이, 독일어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급의 특성에 따라 전체 교과와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주제 중심 구성과, 독일어 교과의 개별성을 강조하는 장르 중심 구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 모두 통합성, 과정 중심성, 학습자 중심성의 이론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다.

34) 위 예시의 밑줄 친 부분은 교육과정에서 제안한 대로, '언어관찰과 문법' 영역의 '간접 문형으로 말하기'를 '말하기와 쓰기' 단원에서 도입한 것이고, 더하여 이 책의 뒷부분에 있는 '문법1' 단원의 페이지를 활용하도록 쪽수를 지정하고 있다.

35) '문학텍스트의 읽기와 이해' 단원에서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다루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당시의 여성들을 평가해 보자.'(앞의 책, p.60)는 공통주제 '성: 다른 역할, 같은 권리를 반영하고, 같은 단원 같은 페이지의 '영웅들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의식이 있는가'는 '종교/윤리' 교과와 접목한 항목이다.

36) '문법1 : 간접문형' 단원에서는 해당 문형이 사용되어 핵심 기능을 하는 '시'를 제시하고, 해당문형을 사용하여 시를 표현하게 하는 등으로, 모든 장르와 상황을 넘나드는 폭넓은 적용을 한다(앞의 책, p.175).

3. 교실 수업

독일어교육의 이론적 배경과 교육과정, 교과서가 일관된 계열성을 보이는 반면, 실제 교실에서의 수업은 이러한 독일어교육의 방향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룬트슐레는 이론적 배경으로부터 연역되는 독일어교육의 방향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따라 가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김나지움은 아직 독일어 교과교육학이 있기 이전의 전통적인 독일어 수업을 고수하는 경향이다.³⁷⁾

그룬트슐레의 경우, 통합적 교육과정 이전부터(70년대부터) 수업을 통합적으로 해 왔으며, 교육과정이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고 하지만 그동안 실제로 수업에 새로운 것은 별로 없었다고 평가한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공통으로 선택한 교재가 있고 학생들은 그것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수업에서는 교사가 직접 선택한 자료(텍스트)를 사용하고 수업교재를 직접 구성한다. ‘말하기와 쓰기, 그리고 문학’이 더 중요하며, 그러나 다른 영역도 빠뜨리지는 않는다. 수업 방법은 가능한 한 활동적인 형태를 구성하고, 특히, 통합교과적 활동을 할 때에는 다양한 사고와 다양한 해결법을 추구한다. 학생들은 독일어 교과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며, 2~3주일에 한 번 정도씩 주는 ‘학습장’의 쓰기 과제를 대개 싫어하고, 특정 영역이나 주제를 좋아하기보다 교사가 얼마나 활동적으로 수업을 구성하는가에 따라 흥미도가 좌우된다. 숙제는 그리 많지 않고, 학습 스트레스는 거의 없다.

김나지움의 수업은 교과서를 하나 선택하여 학생들이 구입하긴 하지만, 교과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교사의 노트를 중심으로 수행된다.³⁸⁾

37) 독일어 수업의 양상을 알기 위하여 한 명의 그룬트슐레 교사(Ute, 여, 경력 35년)와 두 명의 김나지움 독일어 교사(Gernot, 남, 경력 10년; Hillmer, 남, 실습교사), 한 명의 김나지움 학생(김혜경, 여, 11학년)과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평가와 수업의 내용 및 구성방식, 그에 대한 학습자의 수준과 반응 등이었다.

38) 인터뷰 첫머리부터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더 질문할 수 없었다. 자료에 의하면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은 이러한 비판을 한다고

교사의 노트는 주로 선정한 좋은 문학 작품에 대한 설명이고, 학생들은 이것을 받아 적는다. 문학 중심의 수업은 고학년이 될수록 많아지고, 저학년에서는 문법, 받아쓰기, 비판하기, 쓰기, 이야기하기 등을 다루지만, 교과서가 아닌 교사가 준비한 자료를 사용하며, 그나마 시간 할애를 많이 하지 않는다.³⁹⁾ 그 이유는 문학이 다룰 것이 많고, 아비투어가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독일어 수업에 집중하거나 그리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시험공부도 거의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며, 문법은 7~8학년부터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다. 토론과 같은 수업은 매우 좋아하며, 토론 준비도 열심히 한다. 숙제는 거의 없으며, 독일어 교과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없다.

이러한 인터뷰의 결과는 최근에 발표된 논문에서 확인된다(Kämper-van den Boogaart, 2003b: 24-27). 독일의 다른 공무원은 국가 지침을 따르지만 학교만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94년부터 97년까지 헤센주에서 교육과정의 실천 여부에 대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실었다. 94년 새 교육과정이 발표되었을 때, 26%만이 새 교육과정을 고려해서 가르치고 그 이외는 새 교육과정이 좋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1997년 새 틀을 정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94년의 설문 때와 동일한 교사들에게 또 설문을 하였는데, 88%가 새 교육과정을 보았고, 새 교육과정을 연구하여 바꾼 것은 70%였다. 그 70%중에서도 64%는 조금만 바꾼 것뿐이었다. 즉 12%가 새 교육과정을 보지도 않았고, 그 중 18%는 이것마저 무시하여 총 30%가 새 교육과정을 무시하였으며, 64%는 조금 바꾸었고, 단지 6%만이 새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용한 것이다. 교육과정이 새로 개정되었을 때 교사들이 관심 갖는 것은

한다(Kämper-van den Boogaart, 2003: 27). '교육과정의 주제와 내용이 분명하지 않고, 나열하는 식에 그친다.', '교육과정에서 쓰는 말이 너무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의 구체적 내용은 결국 절충과 타협으로 결정된다.' 등. 독일어교육에 대한 배경 이론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이라 이해된다.

39) 김나지움 11학년인 학생은 김나지움에 들어온 이후 독일어 수업시간에 토론을 한 것은 단 1회뿐이었다고 한다.

학습 자료에 대해서만이다. 새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텍스트가 무엇인가를 보고 수업시간에 사용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수법은 바꾸지 않고 기존에 하던 방식을 계속 고수한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갖는 현실적인 의미는, 총괄 목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학부모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문서상의 역할뿐이라고 한다. 교육과정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은 교과서인데, 주 교육국의 검정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과서는 이론적으로는 수업 시간의 가장 중요한 교재이지만, 실제로는 교사의 노트(Notizen) 다음 서열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더욱 심해진다고 한다.

이와 같이 독일어 수업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기준으로 삼기보다 교사의 자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맥을 이어온 교사의 자율성과 문학 중심의 초기 수업의 전통이 여전히 교실현장을 지배한다.

V. 결론 :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독일어교육의 현황은 우리의 국어교육에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한다. 우선, 교과교육학 내에서의 이론적 실천적 전개는 우리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의 교육과정에서 언어 기능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20년 가까이 토대를 닦았고, 국어교육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진 지금, 국어교육은 통합적 실천을 구상하고 있다. 이런 즈음에 독일의 20년간의 통합적 지도의 경험은 우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구성에 한 모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어교과서가 지금까지 국정이었던데 반해, 독일은 오랫동안 검인정 교과서의 전통을 쌓아왔다. 국어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다양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 무르익은 지금, 독일

의 검정 교과서제의 운영과 교과서 구성의 다양한 아이디어는 성공적인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지침이 된다.

그러나, 독일어교육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문학'에 대하여, 그 간 국어교육계에서 알려진 것과 달리, 그것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극복되어야 할 현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해' 영역을 담당하는 교수들이 대부분 문학 전공자들이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문학 교육의 비대화가 PISA의 저조한 결과를 낳았다는 주장을 교과교육 전공자들은 서슴없이 한다. 국어교육의 내용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국면이다.

한편, 제도의 문제로서, 교육의 중앙 관리와 자율 관리 사이의 역학 관계와 효율성에 대해서이다. 우리와 정반대로 교사의 자율성이 최대한으로 부여된 독일의 경우, 여러 가지의 교과서를 다 찾아보며 수업을 준비하는 능동적인 교사를 지원하지만 질 관리를 할 수 없는 한계를 보인다. 국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제도를 개발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사 양성 과정에 대한 문제이다. 독일어교육의 계획과 수업의 실천이 일치하지 않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계획 수립자와 교사 간에 의사소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나지움 교사들은 대학에서 교과교육학을 전혀 접하지 않고, 교과교육에 대해 배우는 것은 현장 선배 교사의 지도뿐이다. 이러한 교사 양성 제도는 학교교육에 학문적 무게를 더하지만, 텍스트를 분석하는 전통적 수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 교과양성 과정에서 교과교육학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사례이다.

이 외에, 독일어교육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의 언어교육적 수용과 다문화의 갈등에 대한 문제, 이민족의 수용과 제이언어로서의 교육에 대한 대처 문제 등은 이 연구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감당하기 위해 국어교육이 무엇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를 준다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윤희원, 김봉순(1998), "국어교육학 국제 비교 연구", 『사대논총』 199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윤희원, 김영근, 김봉순(1997), 『외국의 자국어교육 연구 실태 조사』, 연구보고 RR 97-V-2,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 연구소.
이광복(1999), "90년대 독일 김나지움의 문학교재 분석", 독어교육 18, 한국독어교육학회.

Kultusministerium und Ministerium für Wissenschaft und Forsch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1978), Deutsch-Vorläufige Richtlinien und Lehrpläne
für das Gymnasium - Sekundarstufe I in Nordrhein-Westfalen, Greven
Verlag, Köln.

Achtermann, N. and Ehlen, W.(1990), Deutsch Sekundarstufe II, Stam, Köln-Porz.
Bogdal K. & Korte, H. Hrsg. (2002), Grundzüge der Literaturdidaktik,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München.

Bredel, Ursula et al.(2003), Didaktik der deutschen Sprache - ein Handbuch,
ninth Verlag.

Deutschdidaktik Symposium(1997~1999), Der Deutschunterricht : Vereinigt mit
Diskussion Deutsch.

Graf, G. & Stammel, H.(2000), Sprache : entdecken · üben · nachschlagen -
Sprachbuch für das Gymnasium 7, Schroedel, Hannover.

Herbert, M.(2001), Aventure Land 3 : Lehrerbuch, Ernst Klett Grundschulverlag,
Leipzig.

Herbert, M.(2001), Aventure Land 3, Ernst Klett Grundschulverlag, Leipzig.

Jensen, Uwe et al.(1990), Sprachschlüssel-Lehrerband, Ernst Klett Schulbuchverlag,
Stuttgart.

Kämper-van den Boogaart, M. Hrsg.(2003a), Deutsch Didaktik : Leitfad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Cornelsen, Berlin.

Kämper-van den Boogaart, M.(2003b), Lehrpläne und Deutschunterricht,
Deutsch Didaktik : Leitfad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Cornelsen,
Berlin, 12-33.

* 본 논문은 2004. 10. 30. 투고되었으며, 2004. 11. 15. 심사가 시작되어 2004. 11.
27. 심사가 종료되었음.

- Kämper-van den Boogaart, M.(2003c), Fachdidaktik und Wissenschaft, Deutsch Didaktik : Leitfad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Cornelsen, Berlin, 75-94.
- Lindner, K. & Herbert, M.(2001), Aventure Land 3 : Lesebuch, Ernst Klett Grundschulverlag, Leipzig.
- Mayer, D. & Schoebe, G. Hrsg.(1999a), Verstehen und Gestalten A10, Oldenbourg, München.
- Mayer, D. & Schoebe, G. Hrsg.(1999a), Verstehen und Gestalten B7, Oldenbourg, München.
- Mayer, D. Hrsg.(2003), Sichtweisen : Methoden, Bayerischer Schulbuch Verlag, München.
- Steets, A.(2003), Lernbereich Sprache in der Sekundarstufe I, Deutsch Didaktik : Leitfaden für die Sekundarstufe I und II, Cornelsen, Berlin, 210-231.
<http://www.mpib-berlin.mpg.de/pisa/>

[부록] 그룬트슐레와 김나지움 교육과정 각론 예시

<3학년>

서로 이야기하기	읽고 이해하기	언어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야기하기와 주의깊게 듣기 일상생활과 특별한 경험 이야기하기 · 이야기를 함께 만들고, 이어서 이야기하기 기준에 의해 이야기하고 상상력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 연극적 구성하기 연극 능력 개발하기 미디어적인 연극 개별적인 연극 ·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정보 얻고 나누기 · 함께 대화 나누기 대화 이끌기 : 대화법칙 사용하기 대화 기여도를 비교하기 언어적 다층을 결말짓기 상황에 적합하게 대화하기 협정하기 언어관습 배우기: 축하하기 소원 빌기 예의바르게 질문하기 · 연습 대화 이끌기 발음 : 서로 다른 종류의 텍스트 발표하기 표준어 연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하기 독서환경 함께 조성하기 독서자료 스스로로 선택하기 자유로운 독서시간 이용하기 · 독서자세 시도하기 : 재미있는 읽을거리 읽기 음악적인 내용의 독서 정보를 얻기 위한 독서 행위에 대한 독서 공중 작업적인, 가치평가적인 독서 기억에 남는 독서 텍스트 종류의 균형있는 비율, 예를 들어 어린이-동물 이야기, 동화, 우화, 수수께끼, 유머, 시, 대화, 전설 등의 텍스트를 고려하기 · 책 및 다른 매체와 함께하기 여러 가지 미디어 이용하기 한 가지 책을 함께 읽기 저자와 관계 만들기 스스로 작가 되어보기 도서관 정보 얻기 · 의미파악의 읽기와 이해를 위한 기초 내용 추론하기 : 행위자의 일상적인 일, 흥미거리, · 행위양식을 찾아내기 텍스트 특성 작업하기 텍스트를 재구성하기: 암기해서 낭독하기 텍스트를 미적으로 구성하기 텍스트를 다른 형태로 변환하기 연습 독서 확인과 독서 습관 의미추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 경험하게 하기 다양한 표현 시도하기 · 언어적 수단 조사하기 문장종류: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직접화법의 말과 부수 문장 문장성분: 주어 서술어 품사: 명사-부수어 행위어의 시간적 형태 목적어 부수어 단어의 다양한 형태를 배우기: 행위어의 시간적 형태 목적어의 비교 형태 · 언어의 다양성 단어 분석: 복합어 파생어 같은 어족에 포함되는 단어들 작성하기 언어영역으로 단어 정리하기 단어 또는 주제의 집합 모으기 상위개념으로서의 집합명사를 단어 순서로 찾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의미 관련성 안에서 밝히기 단어와 표현을 다양한 언어로 비교하기 · 언어를 연구하는 기본요소 변형하기, 대체하기, 확장하기, 생략하기, 조희하기 · 연습 기술적인 다양한 연습: 변형, 대체, 조희

쓰기 : 쓰기 그리고 구성하기		
<p>(텍스트 쓰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쓰기를 자극하기 · 글쓰기 환경을 함께 조성하기 · 자유로운 글쓰기 시간을 이용하기 <p>· 글쓰는 목적</p> <p>· 스스로를 위한 글쓰기</p> <p>· 다른 사람을 위한 글쓰기</p> <p>· 이야기 쓰기</p> <p>· 교본 따라 쓰기</p> <p>· 다양한 글 쓰기</p> <p>· 기억 부담을 덜어주는 글쓰기</p> <p>· 쓴 자료 보관하기</p> <p>· 텍스트 쓰기의 구성요소</p> <p>· 글쓰기의 목적 찾기</p> <p>· 텍스트 구성하기:</p> <p>· 텍스트 구성</p> <p>· 텍스트를 순서에 맞게 이야기하기</p> <p>· 텍스트 수정하기:</p> <p>· 쓴 텍스트와 그 효과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p> <p>· 연습</p> <p>· 재검토하기, 문장 전환하기, 단어 균연습</p> <p>(글자쓰기와 형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자쓰기와 형상화를 자극하기 · 글자 형태짓기: 	<p>형태가 맞는 익숙한 글자</p> <p>· 글자쓰기에 친숙해질 수 있는 구성요소</p> <p>· 배껴쓰기</p> <p>· 메모하기</p> <p>· 강조하기</p> <p>· 정정하기</p> <p>· 쓴 글의 점검하기</p> <p>· 연습</p> <p>· 알파벳 연결하기</p> <p>· 능숙한 글자쓰기</p> <p>(정서법)</p> <p>· 정서법으로의 다양한 방향을 제시하기</p> <p>· 운동적이고 시각적인 지각, 글 쓰는 훈련 및 구절법 훈련하기</p> <p>· 언어적 사유를 시작하기</p> <p>· 수업시간에 배운 단어집을 공동작업하고 확인하기</p> <p>· 적합한 내용의 관점</p> <p>· 반복의 관점</p> <p>· 특징적인 정서법의 관점</p> <p>· 가끔 사용되는 철자로 된 단어 들 : aa, cc, oo, qu, x</p>	<p>· 올바른 정서법 배우기</p> <p>· 짧고 강조되는 음절이 포함된 단어를 쓰는 방법 : tz와 ck의 특별한 쓰기</p> <p>· 길고 강조되는 철자배합 ic의 i 어간 쓰기를 통한 단어형태의 보존 : 어말음경화</p> <p>· äu - au, ä - a</p> <p>· 대문자쓰기 : 명사, 문장의 시작</p> <p>· 문장 끝에서의 단어 띄어쓰기</p> <p>· 문장부호쓰기 : 문장부호, 대화부호</p> <p>· 대화문장의 앞에 오는 콜론</p> <p>· 확실한 정서법을 배우기 위한 구성요소</p> <p>· 단어분석하기</p> <p>· 단어의 어휘 쓰기</p> <p>· 법칙 사용하기</p> <p>· 사전 사용하기</p> <p>· 연습</p> <p>· 단어의 시각적인, 발성적인, 발음적인 특징을 기억하기</p> <p>(Akustische, artikulatorische, optische, scheribmotorische Merkmale eines Wortes</p> <p>· 어간의 규칙적인 법칙</p> <p>· 배껴쓰기</p> <p>· 메모하기</p> <p>· 사전을 가지고 작업하기</p> <p>· 배운 단어를 검사하는 받아쓰기와 같은 학습 조절하기. 받아쓰기는 3학년 말에 최대 80단어 정도가 적당하다.</p>

〈7학년〉

말하와 쓰기	문학, 기타 텍스트와 미디어	언어관찰과 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상화연습들, 문학텍스트들과도 연관시켜한다 · 담시(Ballade) 발표 · 회곡텍스트들 연기해보기 (정취극을 만들어 본다) · 구두와필기로 보고하고 서술하기 · 이야기체 텍스트의 내용 설명 · 논거제시하기 · 구두와 필기로 설명하고 어떤 관점이나 실상의 근거를 제시한다 · 간단한 사고적, 논거적 구성들 (주장 - 근거제시 - 결론유추) · 정서법 · 사건의 사용 · 대소문자 쓰기 · 붙이고 띄어 쓰기 · 외래어들 · 문장부호사용 · 받아쓰기용 텍스트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텍스트류들 · 짧은소설 · 짧은 이야기들 · 전설 · 회곡텍스트들 · 담시 · 시 · 보고, 서술[뉴스, 실용서의 텍스트, 시사보도(Reportage), 광고] · 청소년용 도서 · 시나 담시 선정에 있어서 피해와 설리를 참작할 것, 주어진 수업시간에서 최소한 절반의 분량은 독시목록에 있는 문학작품들을 위해 활용한다. · 텍스트들을 읽고, 암기하고, 자유롭게 발표하기 · 글자의 음을 깨끗히 그대로 재현하고, 의미를 열어 가면서 나름대로 형상화시키는 읽기 · 텍스트들을 자유롭게 발표하기 · 여러 개의 시들을 암기하기 · 내용과약과 텍스트의 내용적 문제집들을 다룸 · 처음 가졌던 질문들과 인상들을 표명해 보기 · 의미의 단위에 따라텍스트를 재현하기 · 텍스트연구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호소하는 텍스트들에 있어서의 사실과 의견 구분] · 텍스트의 내용과 형식간의 관련성 · 텍스트의 각 부분들간의 관계 · 텍스트의 근본적인 언어적 특성을 내용과 연계해서 관찰 · 이야기 및 묘사 시각 · 서사적, 서정적, 그리고 회곡적 텍스트들의 간단한 장르상의특징들 · 청소년용 도서들 · 청소년용 이야기 도서 [청소년용실용서] · 광범위한 텍스트의 특별한 점들 · 여가독서 · 독서의 동기와 습관 · 다른 미디어들로 여가선용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장론과 텍스트에서의 기호 사용 · 문장론을 외국어와 맞춰서 하기 · 문장성분 - 성분문장 · 부사적 접속사가 있는 부사적 문장 · 문장에 상응하는 부정형과 분사 · 간접문형으로 말하기 · 접속법 1, 2식에 대한 초보지식과 그 적용 · 대명사의 사용 · 지역및 시간표시법 이용 · 의미론 · 은유법 · 단어들의 워천

〈초록〉

독일 자국어교육의 현황

김봉순

이 연구는 독일어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대해 알기 위하여, 독일어교육의 역사와 제도, 독일어 교과교육학의 위상과 연구동향, 그리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실에서의 실제 수업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국어교육에서 생각해야 할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독일어교육의 이론은 역사적으로 민족주의에서 기능주의로 옮겨져 현재는 통합적 기능교육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표현', '이해', '언어지식'의 세 영역 체제로 구성되고, 통합교과적 주제 또는 공통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는데, 그룬트슬레는 '주제 중심', 김나지움은 '장르 중심'의 구성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수업은 교사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독일어교육의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 지도의 경험은 현 시점에서 국어교육에 중요한 모델이 된다. 둘째, 검정 교과서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아이디어는 우리에게 참고가 된다. 셋째, 교육의 중앙관리와 자율관리 사이의 역학관계와 효율성에 대해 재고하게 한다. 넷째, 교사 양성 과정에서 교과교육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핵심어】 국어교육, 독일어교육, 독일어 교육과정, 독일어 교과서, 독일어 수업, 교육과정, 교과서

〈Abstract〉

A Study on German National Language Education

Kim, Bong-soon

I study on German national language education in its history, operating system, scientific status, tendency of research, curriculums, textbooks, and classroom teachings. As a result of this study, I suggest some issues that have to be urgently discussed for Korean national language education.

Historically, main focuses of German national language education transfer from racial ideology to communication abilities, and now, it is on integrative teaching theories. In influence of the theories, curriculum is composed of three areas : 'expression', 'comprehension', and 'knowledge of the language', and involves themes for integrative teaching. Textbooks are governed by the curriculum, and influenced by teaching method theories. A main idea of composing chapters for Grundschule is thematic, but for Gymnasium is generic. Classroom teaching is wholly controlled by teachers, who compose teaching materials for themselves instead of textbooks.

As a result of this study, I discuss on issues : how can we make a model for integrative curriculum and textbooks, how can we manage several kinds of textbooks, how can we control interac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ed and teachers's self-regulating education systems, and how necessary is subject matter education in pre-teacher education courses.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German education, German curriculum, German textbook, German instruction, curriculum, textbook.